

蘆沙學派의 형성과 蘆沙學의 계승*

朴 鶴 來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 철학전공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蘆沙學派의 형성과 전개

III. 奇正鎭의 학문적 입장과 그 계승

I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www.kci.go.kr

<논문 요약>

19세기 이후 본격화하는 기호학계의 학파 분화 속에서 奇正鎭(1798~1879)의 강학 활동에 따라 구체화된 ‘蘆沙學派’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학파적 면모를 유지하며 근현대 한국 유학의 중심 중 하나를 이루었다. 理 중심의 성리설을 중심으로 구축된 기정진의 특징적인 학문과 內修外攘을 바탕으로 제시된 그의 위정척사 사상은 호남 및 서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일찍부터 문인 집단을 형성하였고, 이후 직전 제자들의 폭넓은 강학 활동을 통해 학파의 외연이 확대되었다. 특히 1902년 『蘆沙集』 三刊 당시에 불거진 기정진 학설에 대한 기호학계의 비판에 맞서 반비판을 전개하면서 직전 제자들은 학파 문인들의 단결을 이끌며 학문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등 어느 학파보다 학파적 일체감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사학과에 관한 연구는 직전 제자들로 구성된 문인들에 관한 연구에 한정되거나 직전 제자 가운데에서도 특정 문인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노사학과 전체를 아우르며 학파 전체의 규모나 체계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20세기를 관통하며 이어진 노사학파의 전체 규모와 체계,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현실 인식 및 대응 양상 등을 고찰할 필요성에 의하여 노사학파의 형성 배경을 비롯하여 기정진을 비롯한 문인들의 학문적 입장과 특징,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개된 노사학과 문인들의 학문 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호남을 중심으로 서부 경남에 걸쳐 8천여 명을 상회하는 문인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으며, 이들의 활동이 중단 없이 20세기 후반까지 이어져 근현대 한국 유학의 중심지 중 한 곳이 노사학과 문인들이 활동한 호남을 비롯한 서부 경남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奇正鎭, 蘆沙學派, 講學 活動, 『蘆沙集』, 湖南, 西部 慶南.

I. 들어가는 말

19세기 이후 본격화하는 기호학계의 학파 분화 속에서 奇正鎭(1798~1879)의 강학 활동에 따라 구체화된 ‘蘆沙學派’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그 학파적 면모를 유지하며 근현대 한국 유학의 중심 중 하나를 이루었다. 朱子學과 栗谷으로부터 이어진 기호학파의 학문에 대한 리 중심의 이해와 계승을 통해 구축된 기정진의 특징적인 학문은 기정진의 생존 당시는 물론, 그의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湖南 및 西部 慶南을 중심으로 그 영향이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內修外攘을 바탕으로 한 제시된 기정진의 위정척사 사상은 직전 제자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이어져 19세기 후반 이후 본격화하는 위정척사 운동과 의병 활동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강한 항일 의지로 표면화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를 관통하며 학문적 영향력을 강화하며 학파의 외연을 확대한 노사학파의 특징적인 면모는 기정진이 제시한 리 중심의 성리설과 강한 실천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성리와 의리의 일관 구조 하에서 성리학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기정진과 노사학파 문인들의 학문 활동은 당대 다른 학파보다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근현대 한국 유학의 중심을 이루었던 기정진과 노사학파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일찍부터 조성되었다. 호락논쟁에 대한 비판적 지양과 리의 절대적인 주재성을 강조한 기정진의 성리설은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 적지 않은 연구성과로 이어졌으며, 이항로와 더불어 위정척사 운동의 1세대에 해당하는 기정진의 실천 지향적인 개혁 사상도 역사학 분야뿐만 아니라 철학 분야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정진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노사학파라는 문인 집단에 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진행되어 적지 않은 연구성과로 구체화 되었다.¹⁾

하지만 그동안의 노사학파에 관한 연구는 직전 제자들로 구성된 문인

들에 한정되거나 직전 제자 가운데에서도 특정 문인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는 등 학파 전체를 아우르고 학파 전체의 규모나 체계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이전보다 그 연구 대상을 확장하고 20세기 후반까지 이어진 노사학파의 전체 규모와 체계,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현실 인식 및 대응 양상 등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향후 노사학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요청되지만, 본 발표문에서는 노사학파의 형성과 학문적 특징, 그리고 학문 활동을 비롯하여 다방면에서 펼쳐진 기정진 및 그의 문인들의 활동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노사학파 연구의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蘆沙學派의 形成과 展開

1. 蘆沙學派의 形成 背景

‘노사학파’라는 기호학계의 대표적인 문인 집단이 형성될 수 있었던 실질적인 배경은 기정진이 일구어낸 주목할 만한 학문적 성취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학문적 탁월성을 갖춘 학자라고 하더라도 학계의 높은 평가가 부수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비록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폭넓은 사회관계망이 부수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어려서부터 지역 내의 유력한 인사로부터 학문적 탁월성은 인정받았던 기정진은 청·장년기를 거치면서 여러 사회관계망을 통해 자신의 학자적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자신과 연계된 여러 사회관계망을 통해 자신의 학문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노사학파라는 큰 문인 집단을 형성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기정진과 노사학파에 대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박학래, 「蘆沙學 研究의 現況과 課題 - 한국 철학계의 연구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70, 2018 참조.

기정진은 당대 다른 학파의 종장들과 달리 뚜렷한 사승관계 없이 율곡의 학문을 기반으로 하는 家學²⁾과 기호 계열 학자들과의 학문 토론과 교유를 통해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체계화하였다.³⁾ 비록 율곡 학설에 대한 비판의 혐의를 받아 그의 사후에 淵齋學派 및 艮齋學派 문인들로부터 날 선 비판을 받았지만, 기정진은 청년기부터 이미 주자학 및 율곡의 학문에 대한 특징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전대 기호학계의 여러 논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리의 주재성을 강화하는 학문적 입장을 구체화하였다.

착실히 자신의 학문적 체계를 구체화한 기정진은 20대 이후부터 자신을 둘러싼 여러 사회관계망을 통해 자신의 학자적 위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기정진의 학자적 위상은 20대 중반부터 이어진 그에 대한 기호학계 주요 학자들의 높은 평가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26세 때부터 당대 기호학계를 주도하던 金邁淳(1776~1840)과 宋釋圭(1759~1838) 등으로부터 높은 학문적 평가를 받았다.⁴⁾ 그리고 30대 초반에 이르러 그가 응시했던 사마시의 主試官이었던 洪奭周(1774~1842)로부터 “기정진의 문장은 理學에서 나왔다. 중간에 여러 段의 말과 說은 옛사람들이 일찍이 말한 바 없는 것이다. 과거를 통해 인재를 얻었으니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높은 평가를 받는 등⁵⁾ 30대에 이미 호

2) 己卯士禍(1519)를 계기로 경기도 고양 일대에서 전남 일대로 이거한 행주거씨 가문은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사람인 奇大升(1527~1572)을 비롯하여 기정진의 선조인 奇孝諫(1539~1593) 등을 배출하며 호남의 名門巨族으로 발돋움하였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기정진의 5대조인 奇挺翼(1627~1690)이 宋時烈의 문인으로 자정하면서 율곡 학맥과 결부된 가학 전통을 정립하였다.

3) 기정진은 정읍에서 활동하던 權宇仁(?~1860)을 비롯하여 40여 년간 교유 관계를 지속한 金載愚, 그리고 낙론계의 대표적인 학자인 宋釋圭와 洪直弼(1776~1852)의 문하를 넘나들었던 黃錫進(1799~1865) 등과 어려서부터 학문적 교유를 진행하였다. 특히 기정진은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權宇仁과의 학문 토론을 통해 자신의 성리학적 입장을 구체화하였다.

4) 『蘆沙先生文集』附錄, 卷1, 10b, 「年譜」, 26歲條; 같은 책, 10b, 「年譜」, 28歲條.

5) 『蘆沙先生文集』附錄, 卷1, 11a~b, 「年譜」, 34歲條.

남을 넘어 기호학계 전반에 걸쳐 학자적 위상을 갖추어 나갔다.

비록 기정진은 문과에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기호학계 주요 학자들의 높은 학문적 평가가 이어짐에 따라 康陵參奉(35세), 顯陵參奉(38세), 司饗院主簿(40세), 典設司別提, 平安道都事(이상 45세) 등을 잇달아 제수받아 자신의 학자적 명성을 굳건히 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연이은 관직 제수가 기정진에 대한 조정의 관심뿐만 아니라 당시 전라도 관찰사의 천거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학자적 위상이 적어도 호남 지역 내에서 굳건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호남 지역 내에서 학자적 명성을 굳건히 한 기정진은 40대 이후 자신의 학문적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호학계의 주요 학자 및 중앙 정계의 인사, 그리고 지역 내의 유력한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였다. 19세기 기호 낙론계의 핵심이었던 洪直弼의 대표 문인인 任憲晦(1811~1876)를 비롯하여 閔胄顯(1808~1882), 李應辰(1817~1887), 宋一賢(1788~1874), 金箕澧(1796~1854), 韓達裕, 愼在夏, 崔敬休(1814~1865), 申濟模(1816~1873) 등 낙론계 학자들과 직간접적으로 학문적 교류를 진행하는 한편, 이들과 특정한 성리학적 주제에 대해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주고받았다. 이들 이외에도 그는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송치규의 문인인 나주의 朴聖冽(1769~1845), 함양의 李晁一(1801~1873) 등을 비롯하여 송시열 가문 인사들과의 교류를 진행하며 영호남 지역에 걸쳐 자신의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특히 그는 혼맥으로 이어진 鄭汝昌 가문의 鄭煥弼(1798~1859)을 중심으로 경남 지역의 노론 인사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이 지역에 대한 遊歷을 통해 학문적 영향력을 강화하였다.⁶⁾

6) 기정진은 44세인 1841년 봄에 경남 지역으로 遊歷을 단행하였다. 남원에서 출발하여 덕유산과 지리산을 거쳐 三嘉에 도착한 기정진은 병환 때문에 그곳에서 3일간 유숙을 하게 되었고, 이때 기정진을 존모하던 경남 지역의 유림들이 이곳에 모여 시를 짓는 등 별도의 모임을 가졌다. 그와 교유한 대표적인 경남 지역의 노론 학자로는 산청의 閔在南(1802~1873), 진주의 河達弘(1809~1877), 삼가의 崔惟允(1809~1877) 등을 들 수 있다. 『蘆沙先生文集』附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명망이 높아짐에 따라 기정진은 철종 대(1849~63)와 고종 대(1863~1907)에 연이어 주요 관직을 제수받았다. 특히 그가 고종 대에 이르러서도 司憲府 持平, 司憲府 執義(67세), 同副承旨, 戶曹 參議, 工曹 參判(69세) 등에 연이어 피천되었는데, 그 결정적 배경은 「丙寅疏」(1866)였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이 試券에 쓰는 전례와 같다고 하여 제출하지 않았던 「壬戌擬策」을 통해 이미 탁월한 정치적 식견을 보였던 기정진은 「병인소」를 통해 內修外攘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朝野의 주목을 받았으며,⁷⁾ 더구나 강화도를 프랑스군이 점령하자 義兵을 일으키고자 하는 등 기정진의 실천적인 면모도 보여 학문적 명망 이외에 실천적인 위정척사의 중심인물로 부각되었다.

학자적 명망뿐만 아니라 위정척사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된 이후 기정진은 직간접적으로 교유의 폭을 화서학과 및 한주학과 문인들로 확대하여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대원군 집정기에 萬東廟가 훼손되자 호남유림을 대표해 상소문을 작성하였을 정도로 기정진의 호남 지역 내 학자적 위상은 상당한 것이었던 만큼 호남의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도 지속되었다. 이렇듯 여러 사회관계망을 통해 확대된 기정진의 학문적 영향력은 호남을 넘어 서부 경남 지역에까지 노사학과 문인들을 흡수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학문적 영향력 확대는 기정진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어 노사학과 형성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 蘆沙學派의 形成

기정진이 언제부터 문인을 받아들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기정진이 8세 때 이미 인근의 學童들이 책을 끼고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고,⁸⁾ 13세

錄, 卷1, 15b~16a, 「年譜」, 44歲條.

- 7) 고종은 「병인소」에 대해 “아뢰어 여러 조목은 매우 명백하고 통쾌하여 능히 서양 오랑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하다. 그대는 더욱더 훌륭한 방책들을 올려서 나의 지극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고 하명하기도 하였다. 『高宗實錄』 3권, 3년(1866 병인) 8월 16일.

때 장성 백양사에서 글을 읽을 때 인근의 인사들이 소문을 듣고 책을 끼고 모여들었다는 「年譜」의 기록을 통해 볼 때,⁹⁾ 일찍부터 그의 문하에 문인들이 운집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의 문하를 찾았던 인사들은 공식적인 그의 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비범한 학문적 면모를 보이기는 했지만, 아 시기의 기정진은 본격적인 강학 활동을 통해 문인을 배출하기에는 주변 여건이나 자신의 학문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청년기를 거치면서 기정진은 과거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의 학문 체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던 만큼 청년기에 그를 찾았던 인사들도 기정진으로부터 체계적으로 학문을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기정진이 본격적으로 강학 활동을 시작한 때는 그의 학문적 체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40대 이후라 할 수 있다. 「納涼私議」(46세, 1843) 초고를 비롯하여 「定字說」, 「偶記」(이사 48세, 1845) 등 일련의 저작을 통해 자신의 학문 체계를 구축한 때가 40대 중반 이후이고, 더구나 송시열의 遺址 중 하나인 考巖書院의 「重修記」를 작성하는 등 호남 지역 내에서 학자적 위상을 구체화한 시기도 이때였다는 점에서 그의 문하에 문인들이 운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의 중심 강학지였던 장성의 下沙(현재 전남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로 이거한 56세 때부터 그의 강학 활동은 보다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⁰⁾

「연보」에 따르면, 기정진은 제자를 가르치면서 그 단계를 아주 엄중하게 하였으며, “손을灑掃하는 節度を 모르고 입으로만 性理를 談論하는 것이 우리나라 儒者들의 큰 근심이다. 천하에는 다만 하나의 바른 것과 하나의 그른 것이 있으니, 위로 성현의 垂世立教를 따라 다만 이것을

8) 『蘆沙先生文集』附錄, 卷1, 4a, 「年譜」, 8歲條.

9) 『蘆沙先生文集』附錄, 卷1, 7a, 「年譜」, 13歲條.

10) 기정진은 50대 중반에 下沙에 집을 마련한 후 80세 때 月松(현재 전남 장성군 진원면 고산리)에 정착하기 전까지 하사를 근거로 지속적인 강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찾아야 한다. 후세 학자들이 입만 열면 理氣를 말하는 이것이 洙泗의 학문과 다른 소이이다.”라고 강조하였다.¹¹⁾ 기정진은 그를 찾는 문인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학문의 요체와 주요 성리학적 주제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았으며, 제자와의 문답 과정에서 미진한 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관련한 주제와 연관된 저작을 저술하기도 하였다.¹²⁾ 그만큼 문인들과의 문답은 기정진이 학문적 입장을 구체화하는 계기였으며, 문인들은 이를 통해 보다 명확히 기정진의 학문과 사상적 지향을 확인하고 수수하였다.¹³⁾

『蘆沙先生淵源錄』(1961)을 통해 확인되는 기정진의 직전 제자들은 총 594명이다.¹⁴⁾ 이들 가운데 거주지가 불분명한 1명을 제외한 593명 가운데 호남을 지역적 배경으로 하는 제자들은 전북 92명(15.49%), 광주 95명(16.00%), 전남 378명(63.64%) 등 총 56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01] 참조)

-
- 11) 『蘆沙先生文集』附錄, 卷1, 19b, 「年譜」, 55歲條.
 - 12) 「形質氣質說」은 정의림이 形質과 氣質에 대해 의문을 갖고 여러 차례 질정하자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저작이다. 이밖에 기정진은 문인이자 再從弟인 奇文鉉(1811~?)에게 「服制說」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 13) 기정진의 문인들은 기정진의 강학처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초기 제자인 愼在哲(1803~1872)의 「沙上答問」(『松菴遺稿』卷2), 金澗(1814~1884)의 「蘆門執贄書」(『橘隱齋遺稿』卷3)를 비롯하여 蘆門의 3대 제자로 일컬어지는 金錫龜(1835~1885)의 「沙上語錄」(『大谷遺稿』卷5), 鄭載圭(1843~1911)의 「沙上記聞」(『老柏軒先生文集』卷27), 鄭義林(1845~1910)의 「湖上奇遇錄」(『日新齋集』卷12), 그리고 경남의 대표적인 문인인 趙性家(1824~1904)의 「沙上日記」(『月皐集』卷19), 鄭河源(1827~1902)의 「沙上漫錄」(『小蠹集』卷5), 崔琰民(1837~1905)의 「湖上語錄」(『溪南集』卷20), 李直鉉(1850~1928)의 「湖行日記」(『是菴文集』卷9), 權雲煥(1853~1918)의 「沙上贊謁錄」(『明湖文集』卷10) 및 호남 문인인 吳駿善(1851~1931)의 「沙上贊謁錄」(『後石遺稿』卷7)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 14) 기정진 직전 제자들의 명단이 수록된 문인록은 두 차례 간행되었다. 『沙上門人錄』(1948)과 『蘆沙先生淵源錄』(1961)이 그것이다. 『사상문인록』에는 기정진의 직전 제자 356명이 등재되어 있다.

〔표 1〕 노사학과 직전 제자들의 지역별 분포 (『노사선생연원록』)

거주지				문인수(명)	거주지				문인수(명)				
광역시		시군			광역시		시군						
함북 (1명)		무산		1		전남 (378명)							
충북 (2명)	제천	제천	1	2	영암					9			
		청풍	1		강진					9			
충남 (1명)		결성		1						장흥		9	
전북 (91명)	고창	고창	23	39	고흥					홍양	15	16	
		무장	14							고흥	1		
		홍덕	2		영광					9			
	순창		16		곡성					곡성	33	36	
	남원	남원	9	10						옥과	3		
		운봉	1		함평					15			
	정읍	정읍	6	12	순천					순천	12	15	
		고부	4							낙안	3		
		태인	2		보성					4			
	임실		6		무안					32			
	전주		3		해남					2			
	부안		2		광양		1						
	진안		1		여수	돌산	1	2					
	김제		2			여천	1						
광주 (95명)		광주		95		산청	산청	6	7				
		장성		80			단성	1					
전남 (378명)	화순	능주	39	47	합천	삼가	4	7					
		화순	6			초계	3						
		동북	2		진주		3						
	담양	창평	26	63	하동		2						
		담양	37		함양		3						
	나주	남평	12	29	창원		1						
		나주	17		제주 (2명)		제주		2				
				미상 (1명)				1					
합계				594명									

전체 문인의 95.12%에 해당하는 호남 지역의 문인 가운데 광주 및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문인이 473명(79.63%)에 달한다는 것은 기정진(金基鎭)의 학문적 영향력이 강학지인 장성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광주(95명), 장성(80명)을 비롯하여 장성의 인근 지역인 담양(63명), 화순(47명), 곡성(36명), 무안(32명), 나주(29명) 등지에 많은 직전 제자들이 분포하는 것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 및 전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인 수는 적지만, 전북 지역에서도 전체 문인의 15%를 상회하는 92명의 직전 제자들이 배출되었다. 강학지인 장성과 가까운 고창(39명)을 비롯하여 기정진의 출생지인 순창(16명), 그리고 교유 인사들이 비교적 많이 분포했던 정읍(12명), 남원(10명)에서 적지 않은 문인이 배출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장성과 지리적으로 가까웠을 뿐 아니라 기정진의 사회관계망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

경남 지역의 직전 제자는 23명으로 전체 문인의 3.8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정진의 교유망이 경남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교유 인사들을 통해 이 지역의 유림들이 기정진 문하로 입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문인 수가 많지 않았던 것은 당시 경남 지역이 艮齋學派 및 淵齋學派 등 기호 계열의 여러 학파뿐만 아니라 李震相을 중심으로 한 寒洲學派를 비롯하여 張福樞의 四末軒學派, 許傳의 性齋學派 등 퇴계 계열의 여러 학파들이 다수 분포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문인 수에서는 호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이기는 하지만,

15) 기정진은 어려서부터 정읍 출신의 權宇仁, 金載愚, 黃錫進 등과 교유하였다. 남원 지역의 교유 인사로는 정환필과 연결된 崔寬賢 뿐만 아니라 남원 출신의 工曹參判 金漢益(1787~?), 오랜 벗인 韓弘佶(1806~1874)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한홍길과의 오랜 교유는 사후에도 이어져 기우만은 그의 행장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蘆沙先生文集』 卷1, 「金慈仁 漢益 大人以慈仁故受推恩實職追次其壽席韻以呈」; 卷1, 「韓友信之 弘佶 今年春奄歿其孫圭鳳以余有先契遠地來見年才弱冠其意可不且愛臨行丐一言以此爲贖」; 『松沙先生文集』 卷46, 「南湖韓公行狀」 등 참조.

경남 지역 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것이었다.¹⁶⁾

기정진의 직전 제자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문적 일체감이 뚜렷하였다. 별도의 學規나 講規를 만들지 않았지만, 기정진은 강학을 통해 다양한 학문적 주제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거나 혹은 서신을 통해 제자들의 의문점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면서 문인들과의 학문적 일체감과 동질성을 강화하였다.¹⁷⁾ 그가 말년에 이르러 趙性家에게 80년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자신의 리기론적 입장이 담긴 「猥筆」을 열람시키고, 이어 노사학파의 3대 제자인 김석규, 정재규, 정의림에게 「외필」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納涼私議」를 보여주며 자신의 학문에 대한 계승 의지를 확인한 것처럼 노사학파의 기정진 학설에 대한 계승은 타 학파를 압도하는 것이었다.¹⁸⁾ 이러한 학문적 동질성은 노사학과 문인들의 학문적 일체감뿐만 아니라 학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반이었으며, 이후 기정진의 학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밑거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蘆沙學派의 學脈 繼承과 外延 擴大

기정진 생전에 이미 상호 간에 지속적인 학문 토론을 전개하면서 학문적 동질성을 제고하였던 기정진의 직전 제자들은¹⁹⁾ 기정진 생전에 이

16) 기정진을 모시는 고산서원이 건립된 후 처음 배향된 직전 제자 6명 가운데 하동 출신의 조성가와 삼가 출신의 정재규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문인 전체 숫자에 비해 경남 문인들의 영향력이 상당하였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17) 기정진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내용은 그가 사망한 후 정재규가 편집을 주도하여 간행한 『答問類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 15권으로 구성된 『답문류편』은 기정진과 문인 간에 다양한 주제를 두고 주고받은 문답이 정리되어 있다. 이 자료를 통해 기정진이 진행한 문인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의 내용 및 노사학파의 학문적 일체감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8) 『蘆沙先生文集』附錄 卷1, 32b~33a, 「年譜」, 81歲條.; 같은 책, 35a~b, 「年譜」, 82歲條.

19) 대표적으로 김석규는 정재규 및 정의림과의 학문 토론 내용을 정리한 「知舊問答」을 남겼으며, 정재규와 정의림도 각각 「湖上奇遇錄」을 작성하여 학문적

미 자신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강학 활동에 매진하며 기정진 학맥의 계승과 확대에 노력하였다. 비록 기정진과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학문적 영향력을 발휘한 학자들이 다수 배출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학문적 위상을 강화하며 노사학파의 학문적 영향력을 견고히 하였다.

직전 제자들의 강학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활동은 그들의 문하에서 배출된 재전 제자에게로 이어졌다. 그리고 노사학파의 강학 전통은 삼전 제자들에게까지 이어져 노사학파는 그 학파적 면모를 20세기 후반까지 구체화하였다.

〔표 2〕 노사학파 문인들의 지역별 분포 종합 (『노사선생연원록』)

지역	직전 제자	재전 제자	삼전 제자	사전 제자	합계
함북	1명	-	-	-	1명 (0.02%)
서울	-	2명	1명	2명	5명 (0.07%)
경기	-	-	1명	-	1명 (0.02%)
대전	-	-	2명	-	2명 (0.03%)
충북	2명	1명	1명	1명	5명 (0.07%)
충남	1명	-	3명	-	4명 (0.05%)
전북	91명	372명	541명	98명	1,102명 (13.67%)
광주	95명	561명	567명	3명	1,226명 (15.22%)
전남	378명	1,691명	2,816명	230명	5,115명 (63.48%)
제주	2명	-	-	-	2명 (0.03%)
대구	-	5명	-	-	5명 (0.07%)
경북	-	1명	1명	-	2명 (0.03%)
부산	-	3명	2명	-	5명 (0.07%)
경남	23명	249명	300명	2명	574명 (7.13%)
미상	1명	3명	5명	-	9명 (0.12%)
합계	594명	2,888명	4,240명	336명	8,058명 (100%)

유대와 인간적인情理를 정리하였다. 정재규, 『老柏軒先生文集』 卷27, 「湖上奇遇錄」.; 정의림, 『日新齋集』 卷12, 「湖上奇遇錄」 참조.

『노사선생연원록』을 통해 확인되는 재전 제자는 2,888명, 삼전 제자는 4,240명, 사전 제자는 336명으로 확인되며,²⁰⁾ 직전 제자 594명을 포함하면 『노사선생연원록』을 통해 확인되는 노사학과 전체 문인수는 8,05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²¹⁾ [표 2]에서 확인되듯이 재전 제자뿐만 아니라 삼전 및 사전 제자로 이어지는 학맥 계승 과정에서 노사학과의 중심은 호남이었다. 전체 문인의 90%를 상회하는 문인들의 근거지가 호남 지역이었다. 특히 기정진의 강학지였던 장성 인근인 광주 전남 지역의 문인이 8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노사학과의 학맥은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계승되고 확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²⁾

아울러 8천여 명을 상회하는 노사학과 문인들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근현대 한국 유학의 중심 학과 중 하나가 노사학과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표 3] 참조) 유학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20세기 중후반 이후에도 삼전 및 사전 제자들이

20) 중복된 수록된 문인을 포함한 숫자임을 밝힌다. 재전 및 삼전, 사전 제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제자들이 『노사선생연원록』에 중복 수록되었는데, 이것은 노사학과 문인 내부에서 문인 간의 교유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여러 사승 관계가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향후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복 문인에 대한 정리 및 학과 내부의 학문 교유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21) 『노사선생연원록』 이외에 학과 문인들의 개별 문인들의 문집이나 별도의 문인록에 등재된 문인을 포함하면 노사학과 전체 문인은 1만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이 자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재전 제자 이후 노사학과 학맥 계승에서 주목되는 점은 경남 지역의 문인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점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은 직전 제자 가운데 경남 지역 문인들이 차지하는 학과 내 위상과 역할에서 비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강학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기정진 학설과 관련한 논쟁에서 반비판을 주도한 정재규를 비롯하여 기정진의 행장을 작성한 조성가, 학문적 역량이 출중했던 문인으로 평가받은 최숙민 등은 학과 내에서 뚜렷한 위상을 가진 문인으로 평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여준 학문적 영향력은 학과 내부를 넘어 경남 전 지역에 일정 정도 파급되어 자연스럽게 문인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논란이 빚어지기는 하였지만 『노사집』 중간이 이 지역인 단성의 신안정사에서 이루어진 점도 재전 및 삼전, 사전 제자 배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노사학파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노사학파는 현재 진행형의 문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노사학파 문인들의 생년 분포 (『노사선생연원록』)

생년	직전 제자	재전 제자	삼전 제자	사전 제자	합계
1801~1810	27명	-	-	-	27명 (0.34%)
1811~1820	51명	2명	-	-	53명 (0.66%)
1821~1830	88명	-	-	-	88명 (1.10%)
1831~1840	106명	6명	1명	-	113명 (1.41%)
1841~1850	160명	31명	2명	-	193명 (2.40%)
1851~1860	126명	178명	19명	-	323명 (4.01%)
1861~1870	7명	406명	22명	-	435명 (5.40%)
1871~1880	-	593명	120명	-	713명 (8.85%)
1881~1890	-	751명	404명	-	1,155명 (14.34%)
1891~1900	-	616명	963명	27명	1,606명 (19.93%)
1901~1910	-	225명	1154명	28명	1,407명 (17.46%)
1911~1920	-	72명	875명	65명	1,012명 (12.56%)
1921~1930	-	2명	402명	78명	482명 (5.99%)
1931~1940	-	-	225명	106명	331명 (4.11%)
1941~1950	-	-	39명	27명	66명 (0.82%)
미상	29명	6명	14명	5명	54명 (0.67%)
합계	594명	2,888명	4,240명	336명	8,058명 (100%)

재전 제자들은 대체적으로 기정진으로부터 비롯된 노사학파의 학문을 계승하고, 특히 기정진의 학문에 대한 논란 과정에서 기정진 학설에 대한 수호적인 입장을 드러내었다. 『노사집』 중간을 계기로 불거진 기정진 학설 시비 과정에서 재전 제자들도 직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반비판의 내용을 담은 여러 저술을 작성하여 기정진의 학문 계승 의지를 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전 제자들은 기정진의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하여 직전 제자들이 전개한 척사운동과 의병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수많은 재전 제자들이 乙未事變(1895) 이후 기우만이 주도한 의병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강제로 체결된 乙巳勒約(1905) 이후에도 호남과 경남의 직전 제자들이 주도한 의병 활동에 재전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실천 지향적인 면모를 발휘하였다.

삼전 제자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과 유학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된 조건 하에서도 지속적인 강학 활동을 통해 기정진의 학맥을 계승하는 한편, 유교 문화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데 노력하였다. 삼전 제자 가운데 일부는 유학 개혁에 주력하던 학자들과 교유하며 유교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였으며, 일제에 저항하는 학문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삼전 제자들은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創氏改名을 거부하는 등 지사적 면모를 보였으며, 지속적인 강학 활동을 전개하여 기정진의 학맥을 이어가는 데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였다.

20세기 초중반 이후에 활동한 사전 제자들은 근대식 교육이 일반화되고, 전통 학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현저히 감소된 현실적 조건 하에서도 자신의 근거 지역 내에서 서당 등을 운영하며 강학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현대의 학문적 조류에 발맞추어 다양한 학술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미약하지만 학파의 연원이 되는 기정진 학문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유학에 대한 재인식을 도모하였으며, 서예 등 다양한 부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기정진의 숭모 사업 중심에서 나뉘는 역할을 자임하면서 묵묵히 노사학파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Ⅲ. 기정진의 학문적 입장과 그 계승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정진은 특정한 사승 관계 없이 독자적인 학문적 노력을 통해 주목할 만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다. 그의 학문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율곡으로부터 연원하는 가학과 기정진 개인의 지속

적인 학문 연찬, 그리고 주변 인사들과의 학문 토론을 통해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정진의 학문 전반에 걸쳐 주목되는 것은 理 중심의 성리설 체계라 할 수 있다. 19세기까지도 기호학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호락논쟁을 리 일분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호락 양론을 비판적으로 지양한 ‘理分圓融’의 인물성론과 더불어 退栗 이래로 엇갈리는 입장이 거듭된 리기론적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제시된 리의 절대적 주재성을 강화한 리기론, 그리고 율곡의 理通氣局 및 四端七情에 대한 리 중심의 해석 등 그가 제시한 리 중심의 성리설은 그의 학문 체계 내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의 학문 체계 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가 제시한 리 중심의 성리설이 단순히 전대 성리학에 대한 비판적 지양 내지 자가설의 확립이라는 학문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구체적인 사회 현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의 실천적 지향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그는 “천하에 3대 변란이 있으니, 부인이 남편의 자리를 탈취하는 것이 일대 변란[一大變]이요, 신하가 군주의 자리를 탈취하는 것이 일대 변란이며, 오랑캐가 중화의 자리를 탈취하는 것이 일대 변란이다. 만약 기가 리의 자리를 탈취한다면 삼대 변란[三變]은 그 다음의 일이다”²³⁾라고 하여 성리학적 질서가 붕괴되는 당시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는 기저에 리와 기에 대한 이해가 자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시 말해 그의 학문적 입장과 지향은 단순히 학문적 입장의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적 지향과 결부된 것이었으며, 이때 그가 주목한 것은 세계 구성의 근원이자 도덕적 가치의 원천이 리의 절대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23) 『蘆沙先生全集』附錄 卷2, 37a, 「行狀」, “天下大變有三, 妻奪夫位, 一大變也. 臣奪君位, 一大變也. 夷奪華位, 一大變也. 若氣奪理位, 則三變次第事.”

1. 湖洛 양론에 대한 비판적 지양과 리분원융의 제시

기정진은 자신의 학문적 입장이 구체화되던 초기에 무엇보다 먼저 호락논쟁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호락 양론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호락논쟁에 대한 기정진의 입장이 구체화된 「納涼私議」는 기정진의 학문이 구체화되던 초기인 46세 때 처음 저술되었다. 이후 기정진은 주변 학자 및 문인들과의 지속적인 문답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진행한 후 77세 때에 이르러 이 저작의 일부를 수정하는 등 평생 동안 호락논쟁의 여러 쟁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²⁴⁾ 적어도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기정진이 호락논쟁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만큼 호락논쟁의 부정적 폐해가 그가 생존하던 당시까지 지속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인성물성동이에 대한 호락 양론의 엇갈린 주장이 자칫 性論의 분열로 이어져 현실 세계의 도덕적 근거에 대한 의심 내지 부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⁵⁾ 그래서 그는 호락논쟁의 여러 쟁점 가운데 특히 인성물성동이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입장을 구체화하였다.

기정진은 인성과 물성에 대한 호락 양론의 주장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리와 분을 서로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理分相離)으로 요약하였다. 호락 양론 모두 리를 ‘분이 없는 존재’(無分之物)로 여기고, 분을 ‘기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因氣而有)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인 원리로서의 리를 形氣와 분리시켜 이해하고, 분수가 형기에 떨어진 뒤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결국 리와 분, 즉 보편 원리이자 존재와 당위의 근거인 天命과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인 현상 세

24) 黃玹은 기정진의 「납량사의」에 대해 호락의 여러 학자들을 모조리 끌어낼 정도라고 평가하였다. 黃玹(임형택 외 譯), 『역주 梅泉野錄』 상, 문학과지성사, 2005, 238쪽 참조

25) 『蘆沙先生全集』卷16, 6a, 「納涼私議」, “吾懼一是僮侗無物而不足爲一原, 分亦臨時排定而不得爲本分, 同異猶屬第二件事, 其於實體何如也, 此所以諸家論性, 節節推去, 終多難從者也.”

계의 性이 유기적 연관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호락 양론의 성론에 대한 기정진의 진단이었다.²⁶⁾ 이러한 호락 양론의 인물성론에 대한 진단은 결국 기정진의 인물성론이 理分相離의 문제점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기정진은 리일분수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통해 리분상리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호락 양론의 인물성론을 비판적으로 지양하고자 하였다.

기정진이 이해한 리일분수는 근원적인 동일성의 원리로서의 리와 현상적 다양성의 근거로서의 분을 상함 관계로 구조화하는 것이었다. 기정진에 앞서 율곡은 體用的 논리를 적용하여 동일성의 원리를 리의 體에, 개별성의 원리를 리의 用에 각각 연계하여 리를 통해 同異의 문제를 이해하는 입장을 제시하였지만,²⁷⁾ 기정진이 이해한 근세 학자들은 리일분수에 대해 “리는 비록 하나이지만, 이미 기를 타면 기의 청탁수박에 따라 달라진다.”²⁸⁾는 율곡의 언명에 근거하여 근원적 동일성의 원리이자 보편 법칙인 理一이 有形有爲한 기를 타고 유행할 때 參差不齊한 기의 운동 변화와 偏正通塞한 기의 속성과 결합하여 현상 세계의 다양성이 드러난다는 理同氣異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기정진이 이해한 호락 양론은 모두 현상 세계의 보편성 내지 동일성을 리[리일]에, 다양성을 기에 각각 연계하여 리일분수를 理同氣異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근세 학자들의 입장에 대해 기정진은 그 폐단이 “기가 리에게

26) 『蘆沙先生全集』 卷16, 4b~5a, 「納涼私議」, “諸家言人物之性, 其歸雖殊, 竊意其所蔽一也. 曷言蔽之一. 蔽在理分相離. 曷言理分相離. 詳諸家之意, 一是皆理爲無分之物, 分爲因氣而有, 限理一於形氣之地, 局分殊於墮形氣之後, 於是理自理, 分自分, 而性命橫決矣. 性命橫決而論性, 始爲天下裂矣.”

27) 『栗谷全書』 卷12, 248쪽 「答安應休」, “理有體用固也, 一本之理, 理之體也, 萬殊之理, 理之用也.”

28) 『栗谷全書』 卷10, 197쪽 「答成浩原」, “夫理一而已矣, 本無偏正通塞粹駁之異, 而所乘之氣, 升降飛揚, 未嘗止息雜糅參差, 是生萬物, 或正或偏 或通或塞 或清或濁 或粹或駁焉, 理雖一而既乘於氣, 則氣分萬殊, 故在天爲天地之理, 在萬物而爲萬物之理, 在吾人而爲吾人之理.”

서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리가 도리어 기에 제재를 받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논의는 결국 ‘天命之謂性’이라는 도덕적 근거로부터 비롯되는 논의 체계가 한낱 헛된 말에 머물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차별성의 원인을 기로 한정하면 결국 리는 현실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구체적인 운동 변화의 주체인 기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정진의 판단이었다.²⁹⁾ 이에 따라 그는 차별성의 근거가 기가 아닌 리에서 찾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리일분수를 근원적 동일성의 원리로서 리와 현상적 다양성의 근거로서 분을 상함적 관계로 구조화하여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分이란 理一 가운데의 細條理이므로 리와 분 사이에는 층절이 용납되지 않는다. 분은 리의 상대가 아니다. 分殊라는 두 글자가 一에 상대가 되는 것이다. 리는 萬殊를 함유하므로 일이라고 하니 그 실은 一物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다르다(殊)는 것은 진실로 다른 것(眞殊)이 아니므로 분수라고 하니, 다르다(殊)라는 것은 다만 그 分限일 뿐이다.³⁰⁾

리와 분의 상함 관계를 통해 리일분수를 이해한 기정진은 “일이면서 일찍이 분이 없지 아니하고, 다르지만[殊] 일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리의 자연”³¹⁾이라고 지적하고, 리는 본래 동일성과 차별성의 원리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에는 차별성[분]이 내함되어 있고, 현실에서 드러나는 차별적 양태는 아무리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리

29) 『蘆沙先生全集』 卷16, 14b~15a, 「納涼私議」, “況理一氣異, 縱然說得, 亦非好語, 何以故? 理既云萬事本領, 氣是甚樣物事, 乃獨我一我殊背馳去? 茲故理一氣異, 縱然說得, 亦非好語. 近世諸先生拆開理分, 大抵皆我一我殊之論, 其蔽也, 氣無聽命於理, 理反取裁於氣, 天命之謂性, 徒虛語耳.”

30) 『蘆沙先生全集』 卷16, 5a, 「納涼私議」, “以膚淺所聞, 分也者理一中細條理, 理分不容有層節, 分非理之對, 分殊二字乃對一者也, 理涵萬殊, 故曰一, 猶言其實一物也. 殊非眞殊, 故曰分殊, 言所殊者特其分限耳.”

31) 『蘆沙先生全集』 卷16, 14a, 「納涼私議」, “一而未嘗無分, 殊而不害於一者, 乃理之自然.”

의 보편성 내지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리는 圓通하기 때문에 萬理가 곧 一理가운데 함용된 것이며, 일리가 곧 만리의 실체이다. 만약 一인데 萬이 빠져있고, 만인데 일을 방해한다면 이것은 죽은 태극이요 산 태극이 아니다”³²⁾라고 하여 리가 함의하는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나아가 일과 만의 관계에 대해 “一은 萬의 總化이고, 만은 일의 內實이다. 만을 제외하고 일을 말하고, 일을 제외하고 만을 말하는 것은 모두 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비교 빠짐이 없음을 말하면 이른바 萬理森然이고, 그 처음에 縫合이 없음을 말하면 이른바 一理渾然이니, 그 실은 두 가지 일이 아니다”³³⁾라고 하여 일과 만, 리와 분이 원용되어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이일분수에 대한 리 중심의 이해, 즉 리분원용의 체계를 통해 리와 분의 관계를 정초한 그는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인물성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사하였다.

나의 설은 ‘理分圓融’이다. 이것은 이른바 ‘體用一原’·‘顯微無間’이니, 같은 것 가운데 다름이 있고, 다른 것 가운데 같음이 있어서 같음과 다름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³⁴⁾

리와 분은 원용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적 동일성 및 보편성[리], 현상적 다양성과 차별성[분]은 리에 통일되어 있고, 따라서 같음과 다름[同異]의 문제는 원리적으로 근원에서부터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기정진인의 생각이다. 리는 분을 내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다양성은 근원적 동일성으로 수렴되고, 현실에서 드러나는 다양성은 근원

32) 『蘆沙先生全集』, 「答問類篇」 卷2, 7a., “理卽…圓通, 故萬理卽一理之所涵, 一理卽萬理之實體. 若一而闕萬, 萬而妨一則死太極, 非活太極.”

33) 『蘆沙先生全集』, 「答問類編」 卷1, 14a., “一者萬之總也, 萬者一之實也. 外萬而言一, 外一而言萬, 皆不知理者也. 言其無所空闕, 則謂之萬理森然, 言其初無縫合, 則謂之一理渾然, 其實非有兩事也.”

34) 『蘆沙先生全集』 卷16, 14a, 「納涼私議」, “如吾之說, 則理分圓融. 所謂體用一原, 顯微無間者, 同中有異, 異中有同, 同異不須論也.”

적 동일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에서 드러나는 다양성은 실제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정진은 인성과 물성의 동이에 대해 “다르면서 같음이 바로 진정한 같음”이라고 하여 다양성을 리일에 통일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리분원용’을 통해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호락 양론의 성론에 대해 구체적인 비판을 가하며 호락논쟁의 비판적 지양을 진행하였다.

2. 기의 능동적 운동 변화의 부정과 리의 철저한 주재 강조

기정진의 리분원용에 기초한 인물성론에서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근원적 동일성의 원리인 리가 현상의 원리인 분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기에 주도되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⁵⁾ 이것은 기에 의해 현상적 다양성이 드러나면 그것은 우연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다양성과 선악의 결정권이 가치중립적이고 가변적인 기에 의해 주도되어 결국 理弱氣強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한 기정진의 일정 정도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량사의」에서 제시된 그의 인물성론은 결국 리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이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정진의 입장은 그의 학문적 지향이 도덕 세계의 원리적 구조화 및 이에 기초한 도덕 세계의 실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⁶⁾ 따라서 기정진은 「남량사의」를 통해 리 중심의 리일분수에 대한 해석과 이에 기초한 리분원용의 인물성론을 제시하여 현상 세계에서 도덕 실천의 근거를 확보한 후, 지속적인 학문 연찬을 통해 리의 절대성을 강화하는 세계 구성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35) 『蘆沙先生全集』 卷16, 8b, 「納涼私議」, “以理無頭脚, 沒着落之一物, 懸在冥漠之間, 而中道彼有力者驅使, 倉率排定成出萬殊來, 不亦誤哉?”

36) 이러한 기정진의 학문적 입장은 유년 시절부터 이루어진 權宇仁을 비롯한 교유 인사와의 학문 토론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蘆沙先生全集』 卷4, 9b~33b, 「答權信元」 참조.

노력하였고, 그 결과가 집약된 것이 81세 때 저술한 「猥筆」이었다.

기정진의 리기론적 입장의 정수가 담긴 「외필」은 기본적으로 기의 운동 변화를 철저하게 리의 주재 하에 두어 리 중심의 세계 구성 및 변화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다. 리의 주재를 강화하는 이전의 논의가 대체적으로 리기불상잡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는 것과 달리, 기정진은 철저하게 리기일체를 전제로 리의 주재성을 강화하는 특징적인 체계를 제시하였다. “리기는 만 가지 변화[萬化]에 있어 합하여 一體이고,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서로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만약 ‘반드시 이와 같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으면, 그 까닭은 리에 있지 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인과 노비[主僕]의 형세와 先後의 분별이 이것에 즉하면 이미 판연해지는 것이다”³⁷⁾라는 언명에서 확인되듯이 그는 철저하게 리기불상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소이연자로서의 리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여 리 중심의 리기론을 제시하였다.

「외필」을 통해 기정진은 리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주자학의 리기론적 입장을 계승한 바탕 위에서 리와 기에 대한 가치론적 이해를 부가하여 리와 기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리의 존귀함은 상대가 없으니 기가 어떻게 리와 상대되는 짝[對偶]이 될 수 있겠는가? 그 광활함에는 상대가 없다. 기 역시 리 가운데의 일[理中事]이며, 이것은 리가 유행하는 손과 발[理流行之手脚]이다. 그것이 리에 있어 본래 對敵이 없으니, 짝[偶]도 아니요, 적[敵]도 아니면서 어찌 상대하여 거론[對舉]할까 보나?³⁸⁾

理尊無對를 통해 리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를 理中事 내지 理

37) 『蘆沙先生全集』, 「答問類編」 卷1, 12a, “理氣之在萬化, 胞然一體, 元不相離, 而就此不相離之中, 若問其曷爲而必若此, 則其故在於理 而不在於氣也. 然則主僕之勢, 先後之分, 卽此而已判然矣.

38) 『蘆沙先生全集』 卷16, 27b 「猥筆」 “理之尊無對, 氣何可與之對偶. 其闊無對, 氣亦理中事, 乃此理流行之手脚, 其於理本無對敵, 非偶非敵而對舉之何哉”

流行之手脚으로 격하하는 기정진의 리기에 대한 설명은 기를 리에 포함시켜 세계를 구조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리의 가치와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그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결코 리만으로 세계와 현상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리의 규제 하에 놓여 있는 기의 역할과 위상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리기 일체를 축으로 세계 구성과 현상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리와 기의 역할과 위상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소이연자로서의 리와 그것의 구체적 실현인 기가 주인과 노복, 선과 후의 분별이라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그는 율곡이 제시한 機自爾와 非有使之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기정진이 이해한 기자이와 비유사지는 기의 자발적인 운동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³⁹⁾ 따라서 이 명제를 수용하면 현상 세계의 운동 변화에 있어 필연적인 법칙이자 기에 대한 주재로서의 리가 부정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음양이 말미암는 바가 없이 스스로 가고 스스로 멈추는 것이라면 단지 이 두 구절은 내 생각으로는 이미 알 수가 없다.”라며 이 명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었다.⁴⁰⁾ 다시 말해 율곡의 두 명제를 수용하면 현상

39) 율곡의 리기론 전체를 통해 볼 때 율곡이 리의 주재성을 부정하거나 기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율곡은 리의 無爲와 기의 有爲라는 리기론 원칙에 입각하여 기의 動靜은 자기외적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통해 기자이를 제시하면서도 그 원인[所以]으로서 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栗谷全書』, 卷10, 209쪽, 「答成浩原」 참조.

40) 『蘆沙先生全集』 卷16, 24b, 「猥筆」, “今日 其機自爾, 自爾雖不竣勉强之謂, 而已含由已不由之意. 又申言之曰, 非有使之者, 說自爾時, 語猶虛到, 非有使之語意牢確, 眞若陰陽無所關由, 而自行自止者, 只此兩句, 淺見已不可曉.” 하지만 기정진은 전적으로 기자이나 비유사지의 명제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기자이나 비유사지의 설을 ‘유행에만 치중한 설[流行一邊說]을 특정한 것’이라 평가하고, 주기설은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였다.(『蘆沙先生全集』 卷1, 「答問類編」, 21b.) 다시 말해 기자이나 비유사지를 통해 드러나는 세계의 이해방식은 완전히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유행하는 현상 세계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것에 오로지 의지해서는

세계의 운동 변화에 있어 필연적인 법칙이자 기에 대한 주재로서의 리는 부정되고, 결국 본령이 둘이 되는 결과를 낳아 모순에 빠진다고 본 것이다.⁴¹⁾ 그래서 그는 주재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주재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에 대한 리의 주재를 ‘使之’로 정리하고, 리와 기의 관계를 명령자와 명령을 받는 자임을 강조하였다.⁴²⁾

기정진은 기에 대한 리의 철저한 주재를 강조하지만, 여전히 理無爲氣有爲라는 리기론적 원칙을 고수한다. 현실 세계에서 운동 변화의 실질적인 주체는 기이고 리가 실질적인 운동 변화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한다. 따라서 현실 세계의 운동 변화는 氣發理乘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한다.⁴³⁾ 하지만 기정진은 현실 세계의 운동 변화가 기발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기의 운동 변화는 모두 리의 주재, 즉 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리의 주재에 따른 기의 운동 변화는 모두 리의 운동 변화로 볼 수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가 리에 따라〔順〕發하는 것은 氣發이니, 곧 理發이요, 리를 좇아〔循〕行하

안 되고 기자이의 이면에 있는 리의 철저한 주재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설명이다

- 41) 『蘆沙先生全集』 卷16, 24b~25a, 「猥筆」, “一陰一陽之謂道. 一日無陰陽則天命無所施, 不誠無物, 天命一日或息, 則無陰陽矣. 皮之不存, 何物可以動靜也. 非有使之一句內, 天命既息矣. 天命息, 而陰陽因舊實所未聞. 天命爲萬事本領, 今有自行自止, 不關由天命者, 則天命以外, 又一本領也, 兩箇本領, 各自樞紐, 則造化必無此事, 又理弱氣強, 吾懼夫氣奪理位也.”
- 42) 『蘆沙先生全集』 卷16, 25b, 「猥筆」, “動者靜者, 氣也. 動之靜之者, 理也. 動之靜之, 非使之然而何.”
- 43) 기정진은 ‘기발리승’이라는 명제에서 ‘乘’자에 주목한다. 기를 타고 있는 리라는 의미에서 승은 기본적으로 리의 소재처가 기임을 암시하는 대목이지만, 자칫 기의 운동력에만 주목하면 리가 타고 있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기정진은 리를 수동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면 리의 주재성은 약화되고, 단지 살에 붙은 혹이나 말 등에 붙은 파리에 불과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리기일체관에 근거하여 리는 기가 동정할 때 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기에 타고 주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蘆沙先生全集』 卷16, 27a~b, 「猥筆」 참조.

는 것은 氣行이니 곧 理行이다. 理는 조작하거나 스스로 꿈틀거리며 움직이지 아니하니, 발하고 행하는 것은 분명히 기가 하는 데, 리발 리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의 발과 행은 실제로 리에게서 명령을 받은 것이니 명령하는 자는 주인이 되고 명령을 받는 자는 종이 된다.⁴⁴⁾

기에 대한 리의 철저한 주재를 관찰시키고자 한 기정진의 리 중심의 리기론은 당대 여러 학자들의 리기론과 비교하여 극단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리의 절대성과 주재성을 강조하였지만, 율곡 이래로 기호 계열 학자들이 고수하였던 리기불상리의 원칙과 리의 무위를 철저하게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율곡의 계승적 측면이 두드러진다. 다만 기의 운동 변화에서 樞紐 내지 根柢 정도로 이해되었던 리의 주재를 강화하여 명령[使之]로 해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율곡의 기자이나 비유사지를 부정한 것은 기호 계열의 리기론적 입장에서 이탈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율곡설에 대한 계승과 비판이라는 두 면모가 기정진의 성리설에 공존한다는 것은 19세기에 이후 본격적으로 기호학계의 학설 분화가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기정진의 학문적 태도가 전대 학설에 대한 일방적인 묵수에 머물지 않고 시대적 상황과 결부하여 강한 가치 의식을 천명하고자 한 의식적 노력이 반영될 결과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정진 학설에 대한 논란과 노사학파의 대응

호락 양론의 갈등이 여전하고 율곡의 학문에 대한 계승의 입장이 강하였던 19세기 중반 이후의 기호학계 사정을 감안하여 기정진은 생전에 자신의 주요 논설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의 저술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였던 기정진은 말년에 이르러 노사학파의 3대 제

44) 『蘆沙先生全集』 卷16, 26a, 「猥筆」 "氣之順理而發者, 氣發卽理發也. 循理而行者, 氣行卽理行也. 理非有造作自蠢動, 其發其行明是氣爲, 而謂之理發理行何歟. 氣之發與行, 實受命於理, 命者爲主而受命爲僕."

자로 일컬어지는 金錫龜(1835~1885), 鄭載圭(1843~1911), 鄭義林(1845~910) 등에게만 이 저술을 열람시킬 정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학문적 일체감이 강하였던 노사학과 문인들은 기정진 사후에 奇宇萬(1846~1916)이 주축이 되어 문집 간행에 착수하여 사후 3년 만에 『노사집』 초간본(1882)이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었고, 이후 중간본(1898)이 간행되어 기정진의 학문에 대한 노사학과 내외의 관심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기정진과 문인 간의 문답을 정리한 『答問類編』 편집이 시작되어 1891년에 그 결실을 보았다. 연이은 문집 간행은 그만큼 노사학과 문인 내부의 결속과 학문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정진 사후에 어느 학파보다 문인 내부의 결속이 강했던 노사학과 문인들은 1901년에 이르러 기우만, 정재규, 정의림 등이 주축이 되어 보다 완전한 체계를 갖춘 『노사집』 간행에 뜻을 모았다. 그리고 단성의 신안정사에 간소를 마련하여 목판본 『노사집』 간행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정진의 대표 저작인 「납량사의」, 「외필」이 율곡의 학설을 부정한다는 연재학과 문인들의 문제 제기와 함께 문집 간행 중지를 요청 받았다. 그리고 이 저작에 대한 논란이 연재학과 종장인 宋秉璿(1836~1905)과 宋秉珣(1839~1912)에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되었고, 급기야 田愚(1841~1922)를 위시한 기호학계 주요 학자들의 비판서가 제시되면서 기정진의 저작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호 유림 전반에 걸쳐 기정진의 학설을 비난하는 통문이 도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노사학과 문인들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송병선에게 편지를 보내어 비난의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학과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통문을 발송하였다. 기우만이 작성한 「蘆沙門徒通文」을 비롯하여 정재규의 「辨誣文示諸同志」, 그리고 정의림의 「節約辨誣文」, 「通告嶺南列邑章甫文」, 「通告湖南列邑章甫文」 등은 노사학과 내 중심 문인들의 학과 내부 결속을 위한 결과물이었다.⁴⁵⁾ 더불어 노사학과 문인들의

45) 대체적으로 기정진의 「납량사의」와 「외필」에 대한 비판은 율곡의 학설을 정

요청에 따라 최익현이 1902년에 작성한 「神道碑銘」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송병선이 최익현에게 내용의 不適切性を 지적하면서 수정을 요구하는 등 이 논란은 화서학과에까지 확대되었다. 최익현이 송병선의 요청에 응하여 결국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지만, 기정진의 학설을 둘러싼 논란은 노사학과와 학문적 연대를 취하였던 화서학과로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⁴⁶⁾

〔표 4〕 기정진의 「납량사의」에 대한 비판 및 반비판 저작

	이름	비판서	문집	비고
비 판 서	田愚	「納涼私議疑目」(壬寅)	『艮齋先生文集』 前編 卷14	간재학과 종장
		「納涼私議疑目 初本六條 追錄」	『艮齋先生文集』 前編 卷14	
	禹成圭	「奇蘆沙猥筆納涼私議辨」	『景齋集』 卷9	송병선과 교유
	禹夏輒	「納涼私議辨」	『擇窩文集』	송병선 문인
	蔣華植	「奇蘆沙納涼私議記疑」	『復菴先生文集』 卷7	김홍락, 곽종석 문인
반 비 판 서	鄭載圭	「納涼私議記疑辨」	『老柏軒先生文集』 卷28	기정진 직전 제자
		「納涼私議記疑追錄辨」	『老柏軒先生文集』 卷28	
	鄭義林	「辨田愚所著蘆沙先生納涼私議記疑」	『日新齋集』 卷11	기정진 직전 제자
	崔琰民	「辨田良齋涼議記疑」	『溪南集』 卷21	기정진 직전 제자

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이었기 때문에 노사학과 내에 유통된 통문은 기정진의 가학이 율곡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명시하는 한편, 기정진 또한 평생토록 율곡의 도를 존신하고 그 학문을 강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부 내용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은 새로운 학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주기설이 성행하는 것을 보고 후학들을 경계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鄭載奎, 『老柏軒集』 卷29, 27a~28a, 「辨誣文示諸同志」 등 참조.

- 46) 「神道碑銘」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면서 이전에 華西의 高弟인 金平默(1819~1891)이 기정진의 학문과 「猥筆」에 대한 찬사를 보낸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權雲煥	「納涼私議記疑小筭」	『明湖文集』 卷9	기정진 직전 제자
	「納涼私議記疑迫錄小筭」	『明湖文集』 卷9	
南廷燮	「田良齋納涼私議起疑辨」	『素窩文集』 卷5	정재규 문인
梁會洛	「納涼私議記疑辨」	『東溪堂遺稿』 卷6	정재규, 정의림 문인
黃澈源	「納涼私議記議辨」	『重軒文集』 卷7	정재규, 정의림 문인
	「納涼私議記疑迫錄辨」	『重軒文集』 卷7	
柳麟錫	「納涼私議疑目講辨」	『穀菴集』 卷34	이항로 문인

노사학과 주요 문인들은 학과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일련의 비판서에 대응하는 반비판서를 작성하여 학문적으로 대응하였다. 이 당시 기정진의 학설을 둘러싸고 제시된 비판과 반비판의 저술은 [표 4] 및 [표 5]와 같다. 일련의 비판서와 반비판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우의 날선 비판에 대응하여 노사학과 문인들의 반비판서가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전우가 갖는 기호학계 내의 위상과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노사집』 간행과 관련하여 초기 감정적인 대립을 지나 이론적인 비판과 반비판으로 이어지는 학술 논쟁으로 전환한 이후 비교적 논란의 대상은 「외필」의 내용이었다. 전우를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기정진이 「외필」을 저술하면서 문제 삼았던 율곡의 주요 명제에 대해 정당성을 옹호하였고, 이에 맞서 노사학과 문인들은 기정진의 학설을 옹호하면서 기정진이 율곡설과 부합함을 역설하였다.⁴⁷⁾ 이 논쟁 과정에서 양측은 각자의 학문적 입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47) 鄭琦, 黃澈源 등 비롯한 몇몇 문인들은 田愚의 학설을 대상으로 비판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栗溪集』 卷11, 「觀田良齋集」.; 『重軒文集』 卷8, 「辨性師心弟說示同研諸公」 등 참조.

〔표 5〕 기정진의 「외필」에 대한 비판 및 반비판 저작

	저자	비판서	문집	비고
	權鳳熙	「猥筆略辨」	『石梧文集』 卷4	송병선 문인
	權鍾華	「奇蘆沙猥筆說」	『惠村集』 卷10	
	金聲中	「辨猥筆八條」	『河南集』	
	朴世和	「讀猥筆」	『穀堂集』	의당학과 종장
	宋秉珣	「辨論猥筆後戲吟二絶 示沈善仲」	『心石齋先生文集』 卷1	송병선 아우
		「辨猥筆說」	『心石齋先生文集』 卷13	
	禹成圭	「奇蘆沙猥筆納涼私議 辨」	『景齋集』 卷9.	송병선과 교유
	禹夏轍	「奇蘆沙猥筆辨」	『擇窩文集』 卷6	송병선 문인
	尹膺善	「讀猥筆後辨」	『晦堂集』	박세화 문인
비 판 서	蔣華植	「書奇蘆沙猥筆後(壬戌)」	『復菴先生文集』 卷7	김홍락 문인
	田愚	「猥筆辨」(壬寅)	『艮齋先生文集』 前 編 卷13	간재학과 종장
		「猥筆後辨」	『艮齋先生文集』 前 編 卷13	
		「猥筆記疑」(乙巳)	『艮齋先生文集』 前 編 卷14	
		「觀鄭柏軒集猥筆辨辨」 (甲寅)	『艮齋先生文集』 後 編 卷13	
		「題鄭氏猥筆辨辨」(甲 寅)	『艮齋先生文集』 後 編 卷18	
	鄭世永	「辨猥筆辨辨」	『石泉私稿』 卷6	전우 문인
		「猥筆辨」	『石泉拾遺』	
	河祐植	「讀奇蘆沙猥筆」	『澹山集』 卷5	송병선 문인
	韓愔	「讀奇蘆沙猥筆」	『愚山集』 卷16	송병선, 전우 중유
반 비 판 서	鄭載圭	「猥筆辨辨」	『老柏軒先生文集』 卷29	기정진 직전 제자
	鄭時林	「猥筆相質說」	『月波集』 卷1	기정진 직전 제자
	鄭義林	「辨田愚所著蘆沙先生 猥筆辨」	『日新齋集』 卷11	기정진 직전 제자

李直鉉	「述猥」	『是菴文集』 卷10	기정진 직전 제자
權雲煥	「猥筆辨小筭」	『明湖文集』 卷9	기정진 직전 제자
奇宇承	「駁猥筆問目辨」	『普山先生遺稿』 卷1	기정진 직전 제자
李最善	「讀猥筆」	『石田先生文集』 卷2	기정진 직전 제자
朴魯述	「辨良齋猥筆辨」	『石陰遺稿』	기정진 직전 제자
孔學源	「辨猥筆辨」	『道峰先生遺集』 卷9	기우만 문인
梁會甲	「辨猥筆後辨」	『正齋集』	기우만 문인
鄭琦	「猥筆後辨辨」	『栗溪集』 卷11	정재규 문인
	「辨田良齋鄭老栢軒猥筆辨辨」	『栗溪集』 卷11	
黃澈源	「猥筆辨辨」	『重軒文集』 卷7	정재규, 정의립 문인
梁在慶	「偶記」	『希庵遺稿』 卷6	기정진 사숙
金平默	「書蘆沙奇先生猥筆後」	『重菴先生別集』 卷8	이항로 문인

4. 노사학과 문인들의 학문 활동

기정진 사후에 연이어 진행된 문집 간행 이외에 노사학과 문인들은 호남 및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연이어 강회를 개최하여 문인 내부의 학문적 일체성을 도모하였다. 직전 제자들의 기정진 학문에 대한 신뢰와 공유는 ‘會稽講社’의 결성 등 문인들 간의 학문 연찬으로 이어졌으며,⁴⁸⁾ 영호남 문인 간의 활발한 교유를 통한 학문적 일체감 조성으로 구체화되었다.⁴⁹⁾ 1891년 지리산 화엄사에서 열린 직전 제자들의 ‘鍾山講會’는 노사학과 직전 제자들의 대규모 강회이자 기정진 학문의 계승 의지가

48) ‘會稽講社’는 영남의 문인인 權雲煥의 주도로 결성되어 4, 50명의 문인이 참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봉곤, 앞의 논문, 149쪽 참조.

49) 영호남 문인 간의 교류는 기정진 생전에도 이미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이희석은 진주 월회를 방문하여 기정진과 교유 관계에 있던 하달홍과 동문인 조성가 등과 함께 시문을 주고받았다. 기정진 사후에는 호남의 기우만과 정의립 등이 영남을 찾아 강학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영남의 정재규 또한 호남 일대를 방문하여 학문의 결속을 강화하였다. 이밖에 직전 제자들은 함께 지리산을 유람하며 기행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정재규의 「頭流錄」이 대표적이다.

구체화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⁵⁰⁾ 이처럼 기정진 학문에 대한 직전 제자들의 계승 의식 강화는 기호 계열의 타 학파 학자들의 기정진 성리설에 대한 비판에 맞서 노사학과 문인들의 내적 결속과 반비판 전개에 원동력이 되었다.

학과 내부의 결속을 다진 직전 제자들은 시대 상황에 대응하여 척사 운동 및 의병 활동 등 실천적인 면모를 발휘하였다. 기정진 생전에 이미 時勢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실천 지향적인 면모를 공유했던 노사학과 문인들은 급변하는 정세에 비추어 위정척사와 한말 의병의 전면에서 활약하였다. 奇參衍(1851~1908)을 비롯한 수많은 의병장과 기정진에게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문인들은 일제강점기에 항일 활동을 전개하며 실천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기우만은 1896년 장성의병을 주도하는 한편, 「湖南義兵將列傳」을 저술하여 의리 정신 구현에 앞장섰으며, 오준선도 후세의 귀감을 세우기 위해 의병전을 집필하였다. 鄭義林은 기우만과 더불어 호남 의병의 한 가운데에서 활약했으며,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섬나라 오랑캐는 물리쳐야지 화친해서는 안 되며, 나라의 도적은 죽여야 한다.”라는 뜻을 남기고 을화병으로 사망하였다. 鄭載奎 또한 경남의 여러 문인과 함께 최익현이 주도하던 의병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등 실천적 지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직전 제자들의 실천 지향적 면모는 재전 제자들에게로 이어져 특정한 직전 제자들의 문인에 한정되지 않은 수많은 재전 제자들이 乙未事變(1895) 이후 기우만이 주도한 의병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강제로 체결된 乙巳勒約(1905) 이후 호남과 영남에서 직전 제자들이 주도한 의병에 재전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일련의 위정척사와 의병 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노사학과 문

50) 기정진 사후 10여 년이 지난 1891년에는 영남 지역에서 기정진 직전 제자들의 대규모 강회인 ‘鍾山講會’에는 직전 제자뿐만 아니라 재전 제자들도 참석하여 기정진 학문에 대한 공유 의식을 구체화한 사례이다. 김봉곤, 앞의 논문, 149~150쪽 참조.

인들은 앞서 지적인 바와 같이 자신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강학 활동을 전개하며 기정진의 학맥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이들은 지역을 넘나들며 강학을 전개하여 자신의 근거지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여러 문인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강학 활동 이외에 노사학과 문인들은 유교 문화에 대한 수호와 계승 의식을 구체화하며 폭넓은 학문 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6]에서 확인되듯이 직전 제자 가운데 문집을 남긴 문인이 1백여 명을 상회할 정도로 노사학과 문인들은 폭넓은 학문 활동을 펼쳤다. 이들의 문집이 대체적으로 이들의 문하에서 배출된 재전 및 삼전 제자들에 의해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국권 피탈 이후 일제강점기하에서 노사학과 문인들의 유교 문화 수호뿐만 아니라 노사학과 학문에 대한 계승 의식이 뚜렷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¹⁾

기정진으로부터 연원하는 노사학과 학문적 일체감과 동질성 확보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어 일련의 문인록 간행으로 구체화 되기도 하였다. 1948년에 간행된 기정진과 기우만의 문인록인 『沙上門人錄』⁵²⁾을 비롯하여 1960년대 초반에 집성된 노사학과 전체 문인록인 『蘆沙先生淵源錄』⁵³⁾은 노사학과 학맥 계승과 학파 문인들의 일체감이 구체화 된 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1) 정재규의 문인인 鄭琦가 1930년대에도 전우가 작성한 일련의 비판서에 대해 반비판을 전개한 것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2) 『沙上門人錄』은 1948년에 澹對軒에서 간행되었다는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누구에 의해 편집되고 간행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 문인록에는 기정진의 직전 제자 356명과 함께 奇字萬의 제자 755명의 이름, 자, 호, 생년, 그리고 본관과 함께 거주지가 출생년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53) 『蘆沙先生淵源錄』은 기정진의 삼전 제자 중 한 사람이자 장성 지역을 중심으로 기정진 학맥 계승 및 관련 문인들의 문집 편찬 등을 주도하던 邊時淵(1922~2006)이 주축이 되어 노사학과 문인 전체를 아우르는 문인록 발간이 추진되어 1960년에 그 결실을 본 것이다. 澹對軒에서 간행된 이 연원록에는 연원록에 수록된 노사학과 전체 문인은 직전 제자 594명, 재전 제자 2,888명, 삼전 제자 4,240명, 사전 제자 336명 등 총 8,058명(중복 문인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6〕 기정진 직전 제자들의 문집 현황

	성명	생몰년	문집(저작)		성명	생몰년	문집(저작)
1	吳相鳳	1801~1884	吳氏覆瓿集 (실전)	57	李卿範	1844~1923	遺稿 有 (미간행)
2	愼在哲	1803~1872	松菴遺稿	58	鄭義林	1845~1910	日新齋集/日新 齋日記
3	李僖錫	1804~1889	南坡集	59	鄭在舜	1845~?	遺稿 有 (미간행)
4	鄭冕奎	1804~1868	老圃遺稿	60	李廷鉉	1845~?	秋灘遺稿
5	姜寅會	1807~1880	春坡遺稿	61	李教文	1846~1914	日峯遺稿
6	朴濟邦	1808~1886	安湖遺稿 (白隱世稿 內)	62	邊大容	1846~?	松山遺稿
7	安重燮	1812~1883	蓮上集	63	金東炫	1846~1918	宋隱堂遺稿
8	朴源應	1812~1898	遺稿 有 (미간행)	64	沈能贊	1846~?	遺稿 有 (미간행)
9	金瀏	1814~1884	橘隱齋遺稿	65	朴禎基	1846~?	金剛山遊山錄 (樂府 內)
10	閔三顯	1815~1888	遺稿 有 (미간행)	66	奇宇萬	1846~1916	松沙集
11	李重暹	1817~1884	餘谷遺稿 (李氏三世稿內)	67	趙泳萬	1847~?	叢桂集
12	趙性家	1824~1904	月皐文集	68	金亨九	1847~?	星沙遺稿
13	李奎永	1824~1902	槐蔭軒集	69	李泰魯	1848~1928	又顯先生遺稿
14	李最善	1825~1883	石田集	70	楊錫謨	1848~1918	菊露抗秋
15	羅燾圭	1826~1885	德岩漫錄	71	李奎馨	1848~1918	墅隱遺稿
16	柳是漢	1826~?	魯岡漫錄	72	奇慶衍	1848~1923	睡軒集
17	金祿休	1827~1899	莘湖集	73	許潤	1849~1886	懶圃遺稿 (巴陵世稿 內)
18	鄭河源	1827~1902	小蠹集	74	朴海量	1850~1886	聿修齋遺稿
19	李埴	1827~1898	谷隱遺稿	75	李直鉉	1850~1928	是菴先生文集
20	鄭士源	1827~?	遺稿 有 (미간행)	76	崔濟泰	1850~1907	松窩集
21	奇陽衍	1827~1895	柏石軒遺集 /癸酉日記	77	鄭冕圭	1850~1916	農山文集

22	奇弘衍	1828~1898	龍山集	78	鄭休明	1850~?	有村遺稿
23	朴陽東	1829~1905	觀魚軒遺稿	79	尹相龍	1850~?	穎陽齋遺稿
24	金英泰	1829~	晚悔齋遺稿	80	吳駿善	1851~1931	後石遺稿
25	安貞晦	1830~1898	管山遺稿	81	朴魯述	1851~1917	石陰遺稿
26	李道禎	1830~1880	石泉遺稿	82	李龍憲	1851~1895	梧山遺稿
27	柳寅奎	1830~1899	紹巖遺稿	83	崔京煥	1851~1931	大峯實紀
28	朴履炫	1831~?	珍原世稿	84	奇參衍	1851~1908	省齋奇先生舉義錄
29	朴喆鉉	1831~?	遠齋集	85	高濟豐	1852~1902	遺稿 有 (미간행)
30	奇亮衍	1831~1911	遺稿 有 (미간행)	86	梁奎煥	1852~?	遺稿 有 (미간행)
31	曹毅坤	1832~1893	東塢遺稿	87	沈啓淳	1852~1926	竹坡遺稿
32	魏榮馥	1832~1884	茶岳遺稿	88	權雲煥	1853~1918	明湖文集
33	金泰淳	1832~?	白峰日記	89	李熙容	1853~1931	雙石遺稿
34	鄭時林	1833~1912	月波集	90	鄭榮源	1853~1940	颯湖遺稿
35	許鏞	1834~1900	睡鶴遺稿 (巴陵世稿 內)	91	羅元基	1854~1915	講信齋遺稿
36	金錫龜	1835~1885	大谷遺稿	92	金在纘	1854~1927	隱圃遺稿
37	金箕豐	1835~1907	竹岡遺稿	93	梁致有	1854~?	睡軒詩稿
38	盧在奎	1836~1920	龔巖遺稿	94	奇宰	1854~1921	植齋集
39	崔琰民	1837~1905	溪南集	95	高光善	1855~1934	弦窩遺稿
40	曹瑢	1837~1903	惺溪集	96	朴魯厚	1855~1913	翠隱遺稿
41	安達三	1837~1886	小栢處士遺稿	97	宋廷默	1855~1927	後海遺稿
42	閔致完	1838~1910	芝岡文集	98	丁基澤	1855~1919	菊史遺稿
43	李泰鉉	1838~?	春灘先生文集	99	諸葛夏 帛	1855~1918	澹寧集
44	金漢燮	1838~1894	吾南文集	100	曹弼承	1855~1923	遺稿 有 (미간행)
45	朴廷奎	1839~1898	野隱謏錄	101	姜鳳會	1856~1919	三梅齋遺稿

46	申鉉禎	1839~?	遺稿 有 (미간행)	102	李承鶴	1857~1928	靑臯集
47	洪承百	1840~1886	松洲遺稿 (酒隱世稿10편)	103	李枝茂	1857~1912	玉山遺稿
48	李周相	1840~1890	雲溪集	104	洪祐珍	1858~1913	筠軒遺稿
49	金正奎	1841~1914	寒江遺集	105	奇宇承	1858~1907	普山先生遺稿
50	趙性宙	1841~1919	月山遺稿	106	文頌奎	1859~1888	龜巖集
51	吳僖泳	1841~?	藥圃先生集	107	朴魯冕	1860~1913	上古軒遺稿
52	鄭載圭	1843~1911	老柏軒集	108	奇東準	1860~1918	春潭文集
53	吳繼洙	1843~1915	難窩遺稿	109	韓志錫	1861~?	樂安文廟重奉 實紀
54	魏瓘植	1843~1910	春坡遺稿	110	朴丞載	1861~1943	晚軒遺稿
55	閔致亮	1844~1932	稽樵文集	111	高龍鎭	?~?	遺稿 有 (미간행)
56	金顯玉	1844~1910	山石集				

IV. 맺음말 - 노사학파의 위상과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사학파는 기정진의 학문과 사상을 기반으로 20세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학맥이 이어지면 학파적 면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근현대 한국 유학의 중심 중 하나였다. 당시 다른 문인 집단은 대체적으로 학파의 종장이 제시한 학문에 대한 계승을 둘러싸고 학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빚어졌지만,⁵⁴⁾ 노사학파는 기정진의 학문에 대한 계승 의식을 뚜렷이 하며 학파적 일체감과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비록 기정진의 저작을 둘러싸고 기호학계의 논란이 빚어져 학

54) 화서학파의 경우, 이항로의 심설을 둘러싸고 직전 제자들 사이의 분열상이 드러났고, 간재학파는 학파의 종장인 전우의 문집 간행을 둘러싸고 문인들이 분열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연재학파의 경우에는 학파의 분열이 드러나는 양상이지만, 학파의 중심인물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 학파적 결속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과 내부의 동요가 없지 않았지만, 학파 내의 핵심인물을 중심으로 학파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학설 시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파의 동요를 막아내는 등 학문적 결속을 다른 학파를 압도하였다.

노사학과를 비롯하여 기호학계 일각에서 제시된 리의 주재성 강화를 통한 리 중심의 성리설 제기는 기존의 기호 학맥에서 일정 정도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건 하에서 전대 성리 논쟁에 대한 정리의 필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성리학적 가치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⁵⁵⁾ 하지만 율곡 성리설에 대한 계승의 차이로 결과된 기정진의 성리설은 결국 기호학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제한적인 기간 동안이지만 기호학계의 논쟁으로 비화되었다는 점에서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도 율곡 성리설에 대한 계승은 기호학계의 최대 쟁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정진 사후에 노사학과 문인들은 기정진의 학문에 대한 계승 의식을 뚜렷이 하는 한편, 지속적인 강학 활동을 통해 학파의 외연을 지속하고 확장하는 데 주력하였다. 위정척사와 의병 활동의 전면에서 활동하면서 학파의 면모를 대내외에 각인하는 한편, 시대적 상황 변화에 발맞추어 자신의 근거지에서 강학 활동을 전개하는 등 유교 문화의 수호와 계승에 앞장섰다. 학파 문인들의 학문적 결속을 다지는 일련의 강화는 앞서 거론한 기정진 학설을 둘러싼 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이 되었고, 학파 내 교류를 확장하는 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학설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 차계에 걸쳐 진행된 『노사집』 간행은 기정진 학문에 대한 계승 의식이 구체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사학과 문인들의 기정진 학문에 대한 결집을 추동하는 디딤돌이었다고

55) 다른 학파와 달리 기정진과 노사학과는 타 학파와의 학설 논쟁을 본격화하지 않았다. 화서학과 문인들과 전우의 심설 논쟁을 비롯하여 전우의 심성설에 대한 기호학계 및 **영남 학계의** 비판과 반비판 등이 19세기 중반 이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진뿐만 아니라 노사학과 문인들은 전면에서 이 논쟁에 참여하거나 논쟁을 주도하지 않았다.

할 수 있다.

한편, 기정진으로 비롯된 노사학과 학맥의 1백 50여 년에 걸친 계승은 19세기 중반까지 기호학계의 주변부에 위치했던 호남의 성리학적 위상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호남을 중심으로 서부 경남에 걸쳐 8천여 명을 상회하는 문인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이들의 활동이 중단 없이 20세기 후반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근현대 한국 유학의 중심지 중 한 곳이 호남을 비롯한 서부 경남임을 확인하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기정진에 대한 보다 확장된 연구와 더불어 직전 제자부터 사전제자에 이르는 많은 문인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지역 및 학파의 지속 등과 연계하여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 논문접수일: 20.08.28 / 심사완료일: 20.09.21 / 게재확정일: 20.09.29.

<참고문헌>

- 權雲煥, 『明湖文集』(한국역대문집총서 2838~2840집), 경인문화사, 1999.
- 奇宇萬, 『松沙集』, 民族文化推進會, 2005.
- 奇正鎭, 『蘆沙先生全集』(附「蘆沙先生淵源錄」), 保景文化社, 1983.
- _____, 『蘆沙先生文集』(한국문집총간 310집), 한국고전번역원, 2003.
- 金 瀏, 『橘隱齋遺稿』(한국역대문집총서 2695집), 경인문화사, 1999.
- 金錫龜, 『大谷遺稿』(한국역대문집총서 891집), 경인문화사, 1994.
- 李 珥, 『栗谷全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8.
- 李直鉉, 『是菴文集』(한국역대문집총서 834~836집), 경인문화사, 1994.
- 愼在哲, 『松菴遺稿』, 說樂齋, 1963.
- 吳駿善, 『後石遺稿』(한국역대문집총서 444~447집), 경인문화사, 1991.
- 鄭義林, 『日新齋集』(한국역대문집총서 1401~1404집), 경인문화사, 1995.
- 鄭載圭, 『老柏軒先生文集』(한국역대문집총서 507~513집), 경인문화사, 1993.
- 鄭河源, 『小蠹集』, 高敞郡 晉州鄭氏六孫門中, 1998.
- 趙性家, 『月皐集』(한국역대문집총서 516~518집), 경인문화사, 1993.
- 崔琰民, 『溪南集』(한국역대문집총서 501~503집), 경인문화사, 1993.
- 『沙上門人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948.
- 黃玟(임형택 외 驛), 『역주 梅泉野錄』 상, 문학과지성사, 2005.
- 박학래, 『기정진 - 한말유학의 거유』, 성균관대출판부, 2008.
- _____, 「蘆沙 奇正鎭의 性理說을 둘러싼 기호학계의 논쟁 - 「猥筆」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48, 2008.
- _____, 「蘆沙學 研究의 現況과 課題 - 한국 철학계의 연구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70, 2018.
- _____, 「近現代湖南儒學의 地形과 전개 양상 - 도학 계열 문인 집단의 형성과 지역별 분포에 주목하여」, 『東洋古典研究』 78, 2020.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Nosa School and Succession to Nosa Studies

/ Park Hak-Rae (professor Philosophy Major, School of History & Philosophy, Kunsan National Univ.)

569

In the division of the school of Kiho academia that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the 19th century, Ki Jeong-jin(奇正鎭) embodied 'Nosa school(蘆沙學派)' through lecture activities. And the Nosa school was the center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Confucianism, maintaining the system of the school from the mid 19th century to the late 20th century. In addition to presenting the study focusing on the principle-centered theory of Neo-Confucianism, Ki Jeong-jin presented the idea of the Wijongcheoksa based on the appearance of domestic demand. Accordingly, the influence was expanded around Honam and western Gyeongnam areas and formed a literary group early on. After that, his disciples expanded their influence of the Nosa school by carrying out a wide range of lecture activities. In particular, in 1902, when the Nosajip(蘆沙集) was published for the third time, the Nosa school disciples developed a counter-criticism against the criticism of Kiho academic circles. Through this, literary disciples led the unity of the school and confirmed the academic homogeneity, creating a more academic unity than other schools.

In the meantime, the study of Nosa school has been limited to the study of literary groups composed of primary disciples, or focused on the study of specific disciples among the primary disciples. Accordingly, it showed a certain limit to confirm and analyze the scale and system of the whole Nosa school, covering the entire Nosa school.

This study is to pay attention to the necessity of examining the total scal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8S1A6A3A01045347)

and system of the Nosa school that passed through the 20th century, and the perception and response aspects of reality presented by them. The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summarize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the Nosa school, the academic 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disciples including Ki Jung-jin and their successors, and the academic activities of the continuously developed Nosa school disciples. Under these goals, more than 8,000 disciples were continuously released from Honam region to western Gyeongnam region, and their activities continued until the late 20th century without interruption. Accordingly, it was confirmed that the academic activities of Nosa school disciples were the center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Confucianism.

Key words: Ki Jeong-jin(奇正鎭), Nosa school(蘆沙學派), lecture activity, Nosajip(蘆沙集), Honam region, western Gyeongnam region.